



Daily Issues & Comments 2017.4.21

전일 주요 시장 이슈

Issues & Comments

일본 수출 4개월 연속 증가

- 일본 3월 수출 전년 대비 +12.0% 증가
 - 예상치(+6.2%) 큰 폭 상승.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. '15년 1월(+16.9%) 이후 증가폭 최대
 -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(+21.2%), 석유 화학제품(+17.5%), 비철금속(+17.5%) 수출이 크게 확장
 - 국가별로는 대 한국 +29.0%, 인도네시아 +20.9%, 중국 +16.4%, 베트남 +13.7% 등 신흥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크게 증가
 - 3월 한달 간 엔/달러 환율은 -1.2% 하락. 엔화 강세 불구 수출이 급증한 점이 고무적. 본격적인 수출 회복국면이라는 판단
-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힘입어 일본 제조업 경기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
 - 일본 3월 닛케이 제조업 PMI 52.4pt 기록. 7개월 연속 확장국면(50pt 이상) 유지
 - 일본 2월 광공업생산 전년 대비 +4.7% 증가. 4개월 연속 확장세 지속. 수출, 소비 수요 충족 위해 생산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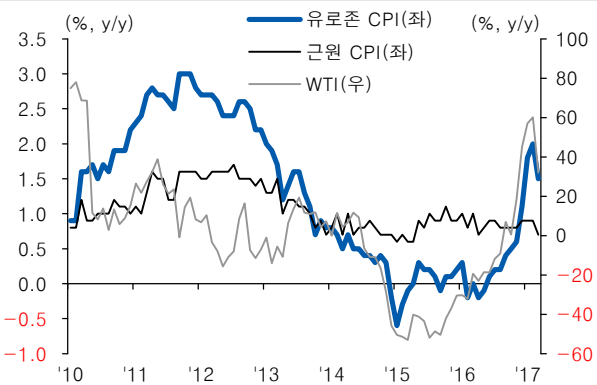
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

-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전년 대비 +1.5% 상승
 - 예상치(+1.5%) 부합. 2월(+2.0%) 대비 상승폭 둔화. 유가 기저효과 감소 영향인 것으로 판단
 - 식품 및 에너지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+0.7%
-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
 - 유로존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. 드라기 ECB 총재는 유가 상승 영향이 지대했다고 평가
 - 2월 인플레이션은 ECB 목표치(+2%)에 도달했으나, 유가 기저효과 둔화와 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모습
 - 다만 ECB는 3월 회의록에서 "필요 시 모든 수단을 동원"이라는 문구를 삭제. 물가 전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
 - 현재 진행중인 QE 프로그램은 올해 말 종료 예정. 월 600억유로(약 72조원) 규모 자산 매입 중

중국 소비 관련주 강세 지속. LG 화학, 6년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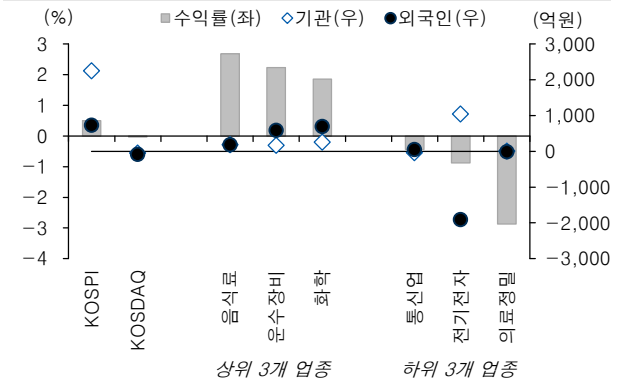
- 음식료 업종(+2.68%) 상승폭 최대. 원/달러 환율 하락 영향인 것으로 판단
 - 원/달러 환율 2거래일 연속 하락(1,139.80원). 원화 강세는 식품 원재료 수입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
 - 롯데제과 +8.29%, 롯데칠성 +6.01%, 오리온 +4.29%, 오뚜기 +2.79%, CJ 제일제당 +2.49% 등
- 화학 업종(+1.86%) 강세.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, LG 화학 실적 호조 영향
 -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, "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"이라고 발언. 사드 배치 지연에 따른 중국 관계 회복 기대감 형성
 - LG 화학, 1분기 매출 6.5조원 기록. 사상 최대 수준.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+74.1% 급증. 2011년 1분기 이후 영업이익 최대
 - 아모레퍼시픽 +3.55%, 휴켄스 +3.47%, LG 화학 +3.14%, LG 생활건강 +2.90% 등

유가 기저효과 감소와 함께 유로존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전일 KOSPI 수익률 상하위 업종 및 기관/외국인 수급



자료: Myresearch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